

허장 2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 참석 위해 프랑스로 출국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2(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6.3(수)~4(목))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허 차관은 각료이사회 계기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프랑스 재무부·프랑스 중앙은행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 38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1년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경제개발협력기구 각료이사회]

프랑스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열린 시장과 성장, 번영을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을 주요 의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재정 관련 국가의 역할, 디지털·신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산업정책과 투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요 >

- ◇ (일정) 6.3(수) 10:00~18:45(현지 시각), 6.4(목) 08:30~14:45(현지 시각)
 - ◇ (주제) 열린 시장과 성장, 번영을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
 - ◇ (의장단) (의장국) 핀란드, (부의장국) 한국, 뉴질랜드
 - ◇ (참석대상) 회원국(한국 포함 38개), 유럽연합(EU), 비회원국(22개), 주요 국제기구
- * (비회원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국제기구)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무역기구(WTO) 등

특히 올해는 1996년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의장국 역할을 맡는 의미 있는 해이다. 부의장국으로서 허 차관은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규제·재정 관련 국가의 역할” 세션을 주재할 계획이다.

[양자면담]

허 차관은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세계 및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 등을 논의하고, 프랑스 재무부 및 중앙은행 주요 인사 등을 만나 향후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남궁향 (hyangchos@korea.kr)

